

“다자녀에 행복도 커져…만만찮은 육아·교육비는 부담”

‘광주 북구 다자녀가족 체험관’ 참여한 4가족에게 들어본 일상

“다자녀 가족들은 다같이 외출 한번 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서 망설이기도 했는데, 오늘처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니 행복하네요.”

광주에서 초등학교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엄마 김미옥(여·43·문흥동)씨의 말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의 ‘다자녀가족 체험관’ 체험 행사에 참가했다. 많게는 4명까지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 4가구 16명이 한 자리에 모여 북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행사다. 저출산 시대, 동네에서 아이 웃음소리 한 번 듣기도 어려운 시기에 다자녀 가족들끼리 모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

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식구가 많다보니 함께 시간을 맞춰 한 번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던 다자녀 가족들이 한 데 모이자, 마치 명절 풍경처럼 가족들이 오손도손 어울리는 장면들이 잇따라 연출됐다.

부모 손을 잡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기도 하며 금세 친구가 됐고, 북구 희망의 거리에서 ‘가족 건강’,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등 ‘우리 가족 희망 메시지’ 적으며 까르르 웃기도 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광주 대표 음식인 육전과 주먹밥을 만들기도 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뜨거운 밥에 시금치와 멸치를 넣어 조물조물 뭉치자, 부엌 안은 금세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주먹밥을 문쳐 아빠에게 한 입 넣어주기도 하고, 엄마의 비법을 전수받아 김치를 충충 찢어 자신만의 주먹밥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풀고, 신기한듯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묻혀 육전·새우호박전·명태전 한 접시를 완성하는 한편 아빠들은 뜨거운

자녀 4명 등 저출산 시대 ‘눈길’ 모처럼 온가족 오손도손 외출
고충 나누고 특별한 추억 만들어
요리 함께 하고 비엔날레 등 관광
각종 혜택 좋지만 실질적 지원 필요

기름에서 ‘전 뒤집기’ 기술을 선보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최유나(7)양은 “엄마랑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랑 오빠랑 같이 만들어서 재밌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국립광주과학관,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을 둘러 과학 실험을 체험하고,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했다. 아시아예술문화정원 산책로에서는 가족별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서 특별한 한때를 보냈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다자녀 가족들의 삶은 넉넉지만은 않았다. 육아 비용부터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이 남들의 세 배, 네 배로 나간다 보니 계획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아 있었다.

김씨의 경우 다자녀 육아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만만치 않은 교육비를 첫 손에 꼽았다.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라 세 아이 모두 학원을 보내기에는 빠듯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아노 학원, 막내는 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김 씨가 집에서 학습지로 자녀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고 털어

봤다.

김 씨는 “출산장려금이나 수도·전기료 감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았지만, 그 외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은 거의 없다”며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은 지원이 많은 반면, 다자녀 가정은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사남매의 아버지 심창통씨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기 어려운 점이 가장 마음아프다고 말했다.

심씨는 과거에도 첫째, 셋째 딸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12주 요리 교실’에 참여할 정도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해 왔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이 함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막내 딸 지후(9)양과 함께 참여한 심 씨는 “첫째, 둘째는 입시와 대학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커 갈수록 여섯 가족이 다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렵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심 씨는 이어 “요즘엔 다자녀를 위한 국가 지원이 꽤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다자녀 혜택이 많이 없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처럼 비용 부담 없이 가족끼리 음식 체험, 지역 관광 등 체험할 기회가 많아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시울(11)·송하울(여·9) 남매를 키우는 김세련(여·42) 씨는 “자녀가 많다 보니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18, 19일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등 4일간 총 100명의 다자녀가족을 선발해 다자녀 가족 체험관광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5·26일에는 광주호 생태원 투어 코스도 진행한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다자녀 가족들이 육전과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위) 다자녀 가족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방한복 받고 함박웃음 “한국 겨울 두렵지 않아요”

전남도동권익센터, 진도 이주노동자 750여명에 나눔행사

19일 진도에서 열린 ‘겨울 작업복 나눔 행사장’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 담았다. 쇼핑하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한국의 낯선 겨울을 앞둔 진도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방한복 나눔행사가 열렸다.

전남도동권익센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이주노동자 75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 작업복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스리랑카 등 더운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기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역 노사 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전남도동권익센터는 전남사회서비스원, 아름다운가게 등 도내 기업과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민 등으로부터 작업복과 겨울옷 1만 7000여벌을 꼼꼼하게 세탁한 뒤 이주노동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지역 농·어민들과 함께 트럭, 승합차, 택시 등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입구에서부터 옷을 담아갈 수 있는 대형봉투를 받아 들었다. 이후 이들은 사이즈별로 정리된 작업복과 신발, 팔토시 등을 자유롭게 입어보며 자기 몸에 딱 맞는 옷들을 골라 봉투에 담았다.

진도군은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인구가 2916명에 달해 전체 인구(2만8138명)의 10.4%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 인구 비중이 높다.

이들 중에는 대파·배추·김 등 수확기에 맞춰 겨울철 야외 농·어업 현장에 투입될 이들이 많은데,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 상당수는 얇은 외투만 지참한 채 입국해 한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는 전남의 농업·어업·제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력”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길주 전남도동권익센터장은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는 시기,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류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올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서도 비상계엄 윤석열 상대 손배소 열린다

시민 23명 제기…내일 첫 변론기일

광주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지법 별관 108호에서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지난해 12월 18일 광주여성변호사회를 통해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하며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론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최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상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을 경험직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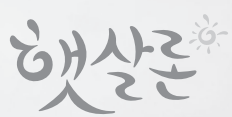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